

1994년도 대학종합자체평가에 나타난 '도서관 영역' 비교연구

— 부산대학교 외 6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

최 정 태*

<목 차>

- | | |
|------------------------|--------------------|
| I. 서 론 | 6. 대학의 총예산 대 자료 |
| II. 「대교협」의 도서관 평가방법 | 구입비 비교 |
| III. 평가내용과 우열순위 | 7. 열람좌석수 대 학생수 |
| 1. 대학과 주변환경 비교 | 비교 |
| 2. 대학의 개황비교 | 8. 비도서자료 확보·비교 |
| 3. 도서관 직원 및 사서직 현황 비교 | 9. 전산기 보유현황 및 전 |
| 4. 장서현황 대 교수·학생수 비교 | 산화 정도 비교 |
| 5. 학술잡지 구독수와 학과·교수수 비교 | IV. 결 론 -종합평가와 제언- |

I. 서 론

온나라가 국제화·세계화를 부르짖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이젠 대학도 예외없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학이라는 거대한 공동은 온실같은 무풍지대에서 안주하며 지내왔다. 21C를 불과 몇해 앞두고 도래하는 정보화 시대에 모든 국가나 사회는 지구촌의 한 유기체로서 경쟁을 더이상 피할 수 없고 현실안주를 더이상 허용치 않는다. 특히 대학은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수준을 좌우하는 중추기관으로서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어디에서든 경쟁질서에서 낙오하면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존재가치가 상실되고 만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그리하여 대학은 생존전략상 “살아남기 위하여”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저마다 세계속의 선진대학을 지향하며 그 구조의 틀을 바꾸고자 개혁의 선봉에 서서 스스로 발전책을 모색하며 구각을 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광복 50년. 그리고 대학설치 반세기. 이는 근대 한국의 역사이고 전형적인 한국 국립대학의 역사이다. 그동안 역사의 와중에서 그리고 고도의 경제성장속에서 우리는 교육을 저버리고 대학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대학설치(국립대학) 반세기 만에 대학다운 대학을 정립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원리를 적용하여 부실한 대학은 도태시키고 올곧은 대학만이 이 사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학을 평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 전국 151개 4년제 정규대학(1994년 4월 현재) 중 제일 먼저 대두되는 대학으로 이른바 우리나라 대표대학으로 지칭되는 서울대학교와 지방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함께 지닌 그 지역 중심대학인 국립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6개 국립대학교와 사립명문인 포항공과대학교 1개 교가 먼저 자체평가의 대상학교로서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자존심과 수치심의 양면을 겸허하게 각오하면서 50여년간 축적한 대학의 활동사를 국가와 사회에 인정받고자 스스로 평가받기를 자원하고 대학 사상 처음으로 대학 전체의 구조를 진단하는 사업에 참여,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받기 위한 자체평가 연구보고서」를 발행하여 만천하에 공개하게 되었다.

사실 이 평가실시는 각 대학이 임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라 함)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대교협은 전국 4년제 대학이 회원이 되어 대학운영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양양하며, 대학의 상호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법률 제3727호, 1984. 4. 10)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한편 대통령 자문기관이었던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1987년에 우리나라의 현행 대학평가제를 보다 강화하여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학평가인정제로 전

환하자는 건의를 하였고, 당시 문교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이고 대교협에 대학평가 인정제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를 위탁하였다. 대교협은 연구진을 구성하여 대학교육 평가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990년에 그 시행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교육부는 우선 학과평가를 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1992년부터 시행하고, 종합평가인정제는 1996년 이후에 도입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각 분야의 개혁 분위기와 대학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대학종합평가인정제의 도입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결국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4년을 대학종합자체평가 시행의 원년으로 삼고 여기에 제 1차적으로 참여한 대학이 국내 굴지의 명문 국립대학교와 사립 특수대학교인 것이다. 평가 영역은 대학 전체를 하나의 단위기관으로 보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1) 교육, (2) 연구, (3) 사회봉사, (4) 교수, (5) 시설·설비, (6) 재정·경영, (7) 대학원의 7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가부문은 총 27개 부문, 평가항목은 총 121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부산대학교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위원자격을 가지고 '시설·설비영역'의 대표집필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설·설비영역에는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실험실습설비, 후생복지시설의 4개 분야가 포함되는데 이 중 특히 교육지원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을 중점적으로 집필하는 중에 교육지원시설로서의 '도서관 분야'는 도서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너무 고식적인 평가방법(temporizing evaluation)인데다 질문의 핵심에서 겹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색다른 채점방식을 보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시설설비영역의 가중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교육지원시설은 7개 항목의 32점인데 도서관은 이 중 3개 항목에서 16점을 배당하고, 활용 정도에 따라 주요 지표에 의거 평가토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평가항목을 가지고 필자를 비롯한 7개 대학의 집필위원들은 거의 같은 조건속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잣대를 사용하여 6개월여의 조사와 연구기간을 거쳐 연구보고서를 생산하였는데 이 책들은 학교 이름만 다를 뿐 동일 서명(title)을 가지고 같은 발행일(1994. 10. 15 : 이날이 제출 상한일임)에 맞춰 동시에 발행

되었다.¹⁾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기록자료는 각 대학 총장의 확인서명²⁾ 을 권두에 날인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에 제출한 바 있고, 각 언론기관에 공개한 것이므로 비교적 정확한 숫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필자의 입장에서도 편견없이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대교협이 제시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된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국립중앙도서관협의회에서 발행한 「국립대학도서관보」 제 12 집(1994)에서 발췌한 데이터에 의거 도서관을 상호비교, 관찰하고, 이들 자료의 내역에서 대학 상호간의 현재사정과 그 편차가 어떠한지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의 중요한 제요소를 기준으로 도서관에 관한 과연 어느 대학도서관이, 특히 어느 분야가 우수한지 7개 대학 사이의 우열순위(ranking)를 매겨 대학의 심장으로서의 도서관을 통해 대학 전체의 종합평가를 담보, 추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대교협」의 도서관 평가방법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한국 교육사상 처음으로 대학의 종합적인 인적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대학내의 몇가지 평가영역을 정량적 평가척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대학간의 경쟁력을 고취시킴으로써 세계속의 선진대학으로 발돋움

-
- 1) ① 경북대학교,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경북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934p.
 - ② 부산대학교,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부산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760p.
 - ③ 서울대학교,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서울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I. 421p., II. (부록) 455p.
 - ④ 전남대학교,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전남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478+232p
 - ⑤ 전북대학교,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전북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345p, 부록. 336p.
 - ⑥ 충남대학교,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충남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328p., 별책. 351p.
 - ⑦ 포항공과대학교,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인정을 위한 포항공과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429p.
- 2) 본 보고서는 '94년도 대학종합평가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 대학교 총장 ○ ○ ○ 인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나온 평가내용은 즉흥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대교협이 발족 당시 (1982년)부터 장기간의 준비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침내 1994년에 평가기준 시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방법은 대학의 전체활동을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평가영역마다 부문별 항목을 세분하여 여기에 부여된 가중치를 점수화하는 정량적 평가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평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 가 영 역	평 가 부 문	가 중 치
1. 교 육		(120)
	1.1 교육목적	14
	1.2 교육과정	40
	1.3 수 업	32
	1.4 학 생	34
2. 연 구		(70)
	2.1 연구실적	22
	2.2 연구여건	22
	2.3 연구지원체제	26
3. 사회봉사		(30)
	3.1 사회봉사	14
	3.2 대외활동	16
4. 교 수		(80)
	4.1 교수구성	32
	4.2 수업부담 및 복지	12
	4.3 교수인사	20
	4.4 교수개발	16
5. 시설·설비		(100)
	5.1 교육기본시설	24
	5.2 교육지원시설	32
	5.3 실험실습 설비	26
	5.4 후생복지 시설	18
6. 재정·경영		(100)
	6.1 재정확보	24
	6.2 예산편성 및 운영	26
	6.3 기획 및 평가	14
	6.4 행정 및 인사	22
	6.5 대학의 의사결정	14
계		500

6 圖書館學論集

즉 대학의 종합평가점수는 5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시설·설비영역은 100점(20%)으로 배당하고 여기에서 다시 4개 부문으로 나누어 교육기본시설, 교육지원시설, 실험실습설비, 후생복지시설로 구분하였는데 ‘도서관 영역’은 아래와 같이 교육지원시설부문에서 평가토록 하였다. (고딕체 글자 참조)

시설·설비영역(100)

평가부문	평가항목	주요지표
5.2 교육지원 시설 (32)	1. 도서확보의 적절성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학부+대학원) 1인당 도서수 • 확보된 도서의 질
	2. 열람좌석의 확보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좌석당 재학생 (학부+대학원) 수 • 개가식 열람석의 비율
	3. 국내·외 정기간행물의 구독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당 평균 정기간행 학술지 구독 종수
	4. 교육매체 제작시설의 확보 및 실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매체 제작시설의 유무 • 최근 3년간 교육매체의 제작 실적
	5. 교육용 컴퓨터의 확보 상태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학생 및 대학원) 1인당 P.C 터미널 수 • 교육용 컴퓨터실 상태
	6. 정보처리 체제의 구축 및 운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체제 및 LAN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교육, 행정을 위한 활용정도 • 도서관 전산화 정도
	7. 체육시설의 적절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장 운영 상황 • 체육과·테니스장 등의 실태

교육지원시설은 시설·설비영역에서 가중치 32점이 할당되고 여기서 도서관은 3개의 소항목에 모두 16점이 배당된다. 다시 말하면 대학 전체 종합점수를 500점으로 할 때 도서관 영역이 차지하는 평가점수는 모두 16점으로 3.2%의 가중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시설의 범위안에서는 50%의 가중치로서 평가토록 하지만 결국 대교협이 평가하고자 하는 도서관 영역의 비중은 대학 전체의 백분율로 3.2%의 중요도에서 머물러 있다.

그 누가 말했는가? “대학의 심장은 도서관이다”라고. 설령 도서관을 대학의 심장이 아니고 다만 구색을 갖추기 위한 쓸모없는 부속품으로 간주하더라도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치가 겨우 3% 내외에서 평가된다는 사실은 한국 대학의 슬픈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대교협이 제시하는 도서관 평가내용의 질(수준)은 또 어떠한가?

- ① 도서관의 도서확보 실적이 우수한가? (8점)
- ② 도서관의 학생 1인당 열람좌석수는 적절한가? (4점)
- ③ 도서관의 국내·외 정기간행물 구독실적은 우수한가? (4점)
- ④ 적절한 정보처리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4점)

위 ④ 항에는 세부적인 평가사항으로 대학내의 전산체제 및 LAN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교육, 행정을 위한 활용정도 그리고 도서관 전산화 추진정도를 간략하게 묻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것이 대학도서관 평가항목의 전부이다. 이 평가항목의 전모가 일선사서들에게 알려지자 한국도서관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되어³⁾ 토론, 비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④ 항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협의회에서 제기되어 이에 대한 의견과 건의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3)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제 2분과, 기조연설 ; 대학종합평가인정체제의 실제와 도서관 평가문제, 제 1주제 ; 대학종합평가기준 항목중 도서관 관련 항목에 대하여, 제 2주제: 대학도서관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1994. 10. 27~29. 장소: 울산대학교) 대회주제발표논문, pp.103~152. 참조.

제출한 바 있다.⁴⁾

결국 도서관의 평가항목은 3개 반 정도로서 장서수, 학술잡지수, 열람좌석수의 계량적 물량을 묻는 것이 고작이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양적 평가(quantitative evaluation)만 있고 질적 평가(qualitative evaluation)는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확보란에 평가의 부수적인 질문으로 '확보된 도서의 질'을 묻고 있지만 누구도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한 사실이 보고서에 없었으며 조사에 대한 가시화된 대안이나 의견도 없었다.

그리고 도서관 평가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사서)의 문제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봉사(information service)와 이용자 연구(user study) 등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평가항목이 전혀없다.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기구나 평가도구가 없어서 도서관의 본질을 오관할 수 밖에 없게 되어있다.

이와같이 도서관의 내용을 외면한채 피상적인 장서수와 열람좌석수 그리고 학술잡지수만을 가지고 도서관을 그렇게 간단히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전산화 정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그것은 유기체로서의 도서관 기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서관의 겉데기만 가지고 전부를 인식하려는 발상이어서 그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스스로 들어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4) 진의 2: 대학종합평가 항목중 도서관 전산화 추진정도 적극 반영요청,
 '94년도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시행('94. 4)을 위한 "대학종합평가 작성·수집 및 비치자료 목록 및 담당부서 분담표"의 평가영역에 보면, 시설·설비영역 중 교육지원 시설의 일부세항에 "도서관 전산화 실태"라는 항목만 있을 뿐 여타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어 객관적인 도서관 전산화의 평가를 할 수 없으므로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항목중 "도서관 전산화 추진정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 개발과 또한 평가항목도 세함이 아닌 독립된 항목으로서 평가배점을 크게 강화하여 도서관 전산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 11. 5.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협의회장

Ⅲ. 평가내용과 우열순위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의 등급을 매겨 서열화 하는데 있지 않다. 다만 보고된 자료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도서관의 능력과 재원을 공개, 비교하여 등급을 평가하므로써 보다 나은 도서관으로 진입케 하는데 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표와 내용은 자체평가보고서 공통서식에 나타난 제반 데이터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여기서 미비된 자료와 미확인된 자료는 다른 참고자료를 보충하여 활용하였다. 배열은 가급적 자체평가보고서의 순으로 기술하되 연구자가 필요시 다른 평가요소를 첨가한 후 모두 9개 항목을 선정, 정량적 평가방법을 택하여 각 항목마다 현황계수를 적고 우열순위를 정하였다.

1. 대학과 주변환경 비교

이번 평가대상교는 서울을 비롯하여 직할시 규모의 전국 4대도시와 도청소재지 등에 있는 그 지방의 대표성을 지닌 정상급의 국립 종합대학교와 사학 명문 특수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대학들은 국가의 명예와 결부되어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그 지역의 자존심과 연관된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 대학의 우열이 소속도시의 긍지(pride)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학의 역할은 소속도시의 시세(市勢)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학간의 경쟁력 확보는 지역도시간의 우열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각 도시에 속해 있는 인구와 물적 에너지, 시설, 자금(예산) 등의 다과(多寡)는 도시의 규모와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도시의 교육시설, 학교수 및 우수대학의 유무는 그 도시의 발전에 핵심자산이 된다.

이번 연구의 첫번째 조사는 7개 평가대상교가 자리하고 있는 7개 도시의 인구현

황과 교육시설 그리고 한해의 시예산 정도로서 도시의 우열을 평가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표-1〉 참조)

〈표-1〉 대학과 주변 환경 비교

	소속 도시	인구 (천명)	학 교 수						'94시 예산 (억원)	시세 순위
			국 민	중	고 등	전 문	대 학	계		
경북대	대 구	2,402	137	87	60	7	4	295	14,803	3
부산대	부 산	4,017	228	146	112	12	12	510	28,552	2
서울대	서 울	11,501	503	347	266	15	36	1,167	92,381	1
전남대	광 주	1,327	89	62	40	8	6	205	12,202	5
전북대	전 주	539	41	24	20	1	3	89	2,630	6
충남대	대 전	1,134	91	59	45	5	6	206	12,721	4
포항 대	포 항	318	26	14	15	—	1	56	1,479	7

자 료 :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1994.

전국통계년감 上, 中, 下. 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4.

이 세요소에서 보인 우열순위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포항 순으로 나타났는 바 (3개 항목을 각 1점으로 하여 평균치로 가산) 이 순서에 따라 대학의 규모도 병렬순으로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대학의 규모와 자산은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포항공대 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구조가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이후 전개되는 논문의 내용에서 대학의 순위가 어떠한지 또한 대학의 심장인 각 대학도서관의 규모와 우열순위가 과연 어떠한지 그 지역에 소속된 대학인에게는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된다.

2. 대학의 개황 비교

대학간의 우열차이는 역사성, 규모성, 활동성 등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가능한데, 먼저 창설순으로 보면 1946년 5월 15일에 설립된 부산대학교가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로서는 최초로 개설한 대학이 되며, 같은 해 8월과 9월에 서울대, 경북대가 창설되었고 6년 후인 1952년에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가 이어서 각각 창설되었다. (<표-2> 참조)

학사기구의 규모과약은 개설 단과대학,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 부속기관, 연구소 등의 외형적 설치 숫자(내용 및 질적 수준은 미확인)만으로 집계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경북대, 전북대, 부산대 순으로 대학간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상태이고, 서울대가 부속기관과 연구소에 있어서 타대학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것이 특징이며, 포항공대를 제외한 5개 대학의 학사기구 규모는 대동소이하다.

대학인구 중 교직원수에서 특히 교수수를 비교하면 부산대, 경북대가 각각 777명으로 2위를 차지하여 서울대 교수 1,389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격차가 너무 크다. 학생수는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서울대가 2만 9천여명이고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순으로 2만명이 넘거나 이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수 2천여명의 포항공대는 200여명의 교수가 확보되어 있어 교수 1인당 10여명이 할당되는 선진국형 대학모델을 보인다는 것이 특기할 만 하다.

다음, 그 대학이 얼마나 큰가 이다. 그것은 학교부지와 건물의 연면적으로 가시화 되는데 교지의 크기로는 충남대, 포항공대, 서울대 순으로 면적이 넓으며, 부산대는 연면적 649천 평방미터로 7개 대학중 최하위를 점하고 있다. 건축물의 크고 많음에 있어서는 서울대, 전남대 순이며, 부산대는 좁은 면적에 건물크기가 전북대와 거의 같은 3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그만큼 건물의 과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의 개황 전체에서 부산대를 중심으로 보면 국립대학 중 가장 먼저 창설된 선도대학이면서 한국 제2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학사기구나 교직원 및 학생수에 있어서 7대학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또한 대학의 부지면적에서도 가장 낮은 확보율을 점하고 있어 대학의 획기적인 확장이나 조치가 필요하다.

〈표-2〉 대학의 개황 비교

설치 년도	학사기구		교직원수*		재학생수		연면적(천㎡)		순				위						
	단과대	대학원 (전문포함)	부속 기관	연구소	교수	일반직	기 타	계	학 부	대학원	계	** 교지	진물	설립 년도	기구 규모	교수수	학생수	교지	건 물
경부대 46.9.	13	8	27	21	777	201	669	1,637	17,992	3,198	21,190	850	300	3	2	2	2	5	6
부산대 46.5.15	12	6	18	30	777	634	241	1,652	16,984	2,896	19,880	649	321	1	4	2	4	7	3
서울대 46.8.22	16	4	38	84	1,389	499	1,432	3,320	21,520	7,937	29,457	1,401	617	2	1	1	1	3	1
전남대 52.1.1	14	5	11	24	756	226	715	1,697	17,933	2,463	20,396	823	367	4	5	4	3	6	2
전북대 52.6.8	13	8	16	29	727	544	321	1,592	15,190	1,941	17,131	1,207	320	6	3	5	6	4	4
충남대 52.5.25	12	6	7	32	694	553	670	1,917	16,146	2,306	18,452	1,574	315	5	6	6	5	1	5
포항공대 86.12.3	1	2	9	14	197	101	178	476	1,257	966	2,223	1,528	250	7	7	7	7	2	7

* 교직원수 중 일반직과 기타수는 대학간 구분기준의 차이에서 편차가 심함.

** 교지의 연면적은 체육장, 농장, 연습필이 제외되었음.

3. 도서관 직원 및 사서직 현황 비교

도서관 구성의 3요소 중 도서관 직원(사서)의 요소는 가장 중시되는 대목이다.

다음 <표-3>의 도서관 총직원수를 보면 부산대와 경북대가 각각 63명으로 서울대 147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상을 보인다. 더우기 관리직, 행정직을 제외한 순수한 사서직의 수에서도 부족한 심화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국립대학이 가지는 공통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도서관의 주인은 사서이고 그 밖의 직원은 보조요원으로 주인보다 보조요원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사서들의 자격증 소지율을 보면 1급 정사서 자격을 소지한 자가 경북대, 서울대, 충남대가 각각 5명으로 가장 많으며 여타 대학은 전혀 없거나 1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전직원수에서 사서자격증 소지율은 50% 이상 70%까지 끌고루 갖추고 있다. 앞으로 이 소지율을 더 높여야 할 것이며 자격증의 종별에 있어서도 대학도서관에서만은 가급적 석사 이상의 1급 정사서 체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3> 도서관 직원 대 사서직수·자격증소지수 비교

	직원수	사서 직수	자격증 소지수				전직원수 에 대한 자격증 소지율 (%)	순 위			
			1 급	2 급	준사서	계		직원수	사서 직수	자격증 소지수	소지율
경북대	63	37	5	29	10	44	69.8	3	3	3	3
부산대	63	40	1	40	5	46	70.0	3	2	2	2
서울대	147	94	5	59	46	110	74.8	1	1	1	1
전남대	67	34	—	28	7	35	52.2	2	4	5	6
전북대	59	30	—	30	10	40	67.8	5	6	4	4
충남대	55	32	5	24	4	33	60.0	6	5	6	5
포항 공대	19	14	—	—	—	—	—	7	7	—	—

자 료 : 도서관 총직원수 이외에는 「국립대학도서관보」12(1994) p.218 참조

4. 장서현황 대 교수·학생수 비교

대학도서관을 평가하는데 도서관이 소장하는 장서수는 평가기준의 첫번째 요소가 된다. (〈표-4〉 참조)

〈표-4〉 장서확보수 대 교수·학생수 비교

	장 서 수			교 수		학 생		순 위		
	동양서	서양서	계	교수수	1인당 책 수	재학생 수	1인당 책 수	장서 수	교 수 1인당	학 생 1인당
경북대	500,946	262,889	763,835	777	983.0	21,190	36.0	2	3	4
부산대	478,405	157,186	635,591	777	818.0	19,880	32.0	5	5	5
서울대	1,013,374	649,644	1,663,018	1,389	1,973.3	29,457	56.5	1	1	2
전남대	445,432	200,046	645,478	756	853.9	20,396	31.6	4	4	6
전북대	*456,236	160,803	517,040	727	711.2	17,131	30.2	6	6	7
충남대	544,765	162,297	707,062	694	1,018.9	18,452	38.3	3	2	3
포항공 대	51,369	76,215	127,584	197	647.6	2,223	57.4	7	7	1

* 전북대 동양서에는 논문 112,923책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하여 세계의 대학들은 저마다 장서확보량을 가지고 대학의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데 미국의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에서는 20년전(1974)부터 미주지역에 산재한 1백여개의 주요대학을 대상으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제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해마다 도서관을 평가해 오고 있다. 평가내용은 장서보유현황에서부터 학술잡지 보유수, 정부간행물 현황, 도서관 직원 및 전문사서직수, 1년간 자료구입비 예산 등의 18개 항목을 분석하여 108개 대학 간의 우열순위를 매긴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매년 책자를 발행하는데 그 자료가 바로

<ARL Statistics>이다.⁵⁾

필자는 이점에 착안, 이제 한국의 모든 대학도서관도 범대학적 협의회를 결성하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가져 왔다. 이번 기회에 우선 7개 대학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국제화 시대에 세계속의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고자 이번에 평가대상 대학도서관을 세계의 대학과 비교하기 위해서 미주지역 100여개 대학 중 최상위권(1~10위), 상위권(50위 내외), 중상위권(100위 내외) 대학 중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생각되는 7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요소 중 5개의 항목을 발췌, 항목마다의 최신현황과 그 현황을 근거로 우열순위를 매긴 자료는 <표-4.1>과 같다.

<표-4.1> 미국의 주요 대학도서관 비교

	장 서 수		학 술 잡 지		도 서 관 직 원		전 문 직 사 서		'93년 자료구입비	
	순 위	책 수 (천권)	순 위	종 수 (천종)	순 위	인원수	순 위	인원수	순 위	천\$(환산금액, 억원)
Harvard	1	12,605	1	96	1	1,129	1	390	1	13,554(108)
Yale	2	9,327	9	52	7	590	2	189	2	10,952(88)
U.C. Berkeley	4	7,981	4	89	2	758	6	152	5	8,824(70)
Stanford	10	6,250	15	46	5	606	5	163	3	10,510(84)
Kentucky	52	2,515	37	26	44	302	58	69	63	4,058(32)
Oklahoma State	101	1,705	80	17	93	193	88	50	107	2,380(19)
N. Carolina State	108	1,485	75	18	74	229	82	52	57	4,236(34)

자 료 : ARL Statistics, 1994.

5) ARL Statistics 1992-1993,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1994. 110p.

위 표에 의하면 미주지역에서 100위권에 있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Oklahoma State Univ.)이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장서수(166만책)보다 많다. 그리고 자료구입비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연간 자료구입비가 19억원을 초과하는데 서울대의 1993년도 자료구입비는 10억원 정도여서 이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하버드대학의 10분의 1에도 못미친다. (〈표-4.1〉 및 〈표-6〉 참조)

한국 대학도서관의 장서수 열악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장서 질(quality)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양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도 선진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대만대학과 싱가포르대학 등 동남아 대학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⁶⁾ 여타 국립대학도서관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중에서도 부산대의 장서수(63만 5천책)는 서울대 장서수의 38%이며 7개 대학 중 5위에 머물고 있다. 이를 다시 교수 1인당 및 학생 1인당 장서수 비율로 산정하여도 5위순을 면치 못하고 있다.

5. 학술잡지 구독수와 학과·교수수 비교

대학도서관의 학술잡지 현황은 도서관 평가의 두번째로 지목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4.1〉과 같이 미국의 100위권 대학인 오클라호마 주립대학 도서관의 최신 학술잡지가 1만 7천여종인데 서울대가 5천여종으로 여기의 30%에 불과하고 다시 부산대는 1,900여종으로 서울대의 38%에 불과할 뿐이다. (〈표-5〉 참조) 그러나 대학 창설 8년 밖에 되지 않는 포항공대의 경우 학술잡지 구독수는 2,600여종으로 부산대를 앞질러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 1인당 13종, 1학과당 238종으로 「대학설치기준령」에 예시하는 165종(1학과당 자연계 15종 : 15×11 학과 = 165종)보다 1.5배를 상회하고 있음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하겠다.

6) 1991년도 서울대학교 자체평가연구보고서, p.172.

〈표-5〉 학술잡지 구독종수 대 학과·교수수 비교

	구입학술잡지종수			학 과 수*			학과 당잡 지수	교 수		순 위		
	국내	국외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교수 수	1인당 잡지수	잡지 수	1학과당 잡지수	1교수당 잡지수
경북대	362	1,279	1,641	92	121	56	17.8	777	2.1	6	6	6
부산대	396	1,583	1,979	86	84	53	23.0	777	2.5	4	4	4
서울대	270	4,912	5,182	106	92	88	48.9	1,389	3.7	1	2	3
전남대	290	1,468	1,758	96	67	55	18.3	756	2.3	5	5	5
전북대	149	1,371	1,520	91	58	43	16.7	727	2.0	7	7	7
충남대	2,014	1,664	3,678	94	82	56	39.1	694	5.3	2	3	2
포항 공대	295	2,331	2,626	11	11	11	238.8	197	13.3	3	1	1

* 학과수는 「국립대학도서관보」12(1994). p.217 참조.

6. 대학의 총예산 대 자료구입비 비교

대학도서관의 장서확충과 학술잡지 확보는 대학의 자료구입비 예산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동시에 자료구입비는 대학총예산과 결부되며 총예산에서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얼마나 할당하느냐에 따라 장서구성의 범위와 양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선진국 대학에서는 대학총예산의 4~6%가 도서관에서 자료구입비로 쓰여지고 있으며 1980년 당시 문교부가 「대학도서관 운영 개선방안」으로 내어놓은 문서에 의하면 “자료구입비를 대학 경상비(시설비 제외)의 3% 이상을 확보토록”⁷⁾ 하였음에도 포항공대를 제외한 6개 대학 중 어느 대학도 15년전에 정부가 지시한 이 수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표-6〉 참조)

7) 1994년도 대학종합평가 인정을 위한 부산대학교 자체평가 연구보고서. p.319.

〈표-6〉 최근 3년간 대학 총예산 대 자료구입비 예산 비교

	년 도	대학 총예산 (천원)	도서구입비* (천원)	비율 (%)	순 위		
					총예산	도서비	비율 (%)
경북대	91	51,455,605	807,520	1.6	2	3	3
	92	60,052,881	844,568	1.4			
	93	69,314,752	898,642	1.3			
	계	180,823,238	2,550,730	1.41			
부산대	91	45,281,983	688,313	1.5	6	6	4
	92	50,990,954	696,728	1.4			
	93	60,135,700	789,502	1.3			
	계	156,408,637	2,174,543	1.39			
서울대	91	95,842,659	951,591	1.0	1	2	7
	92	124,057,553	995,438	0.8			
	93	136,961,396	1,093,447	0.8			
	계	356,861,608	3,040,476	0.85			
전남대	91	50,926,974	853,327	1.7	4	4	2
	92	50,289,930	849,241	1.4			
	93	68,218,836	847,783	1.2			
	계	169,435,740	2,550,351	1.5			
전북대	91	42,136,122	563,817	1.3	7	7	6
	92	49,779,480	639,990	1.3			
	93	55,827,825	647,698	1.2			
	계	147,743,427	1,851,505	1.25			
충남대	91	48,231,649	672,828	1.4	3	5	5
	92	60,019,971	808,491	1.3			
	93	63,820,769	903,810	1.4			
	계	172,072,389	2,385,129	1.38			
포항공대	91	33,783,000	1,351,000	4.0	5	1	1
	92	47,533,000	1,354,000	2.9			
	93	76,453,000	850,000	1.1			
	계	157,769,000	3,555,000	2.25			

* 대교협외 지정양식에는 '도서구입비'로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도서비를 포함하여 학술잡지, 비도서자료 등의 모든 자료구입비가 포함된다.

대학의 총예산 규모는 소속도시의 예산규모와도 관련이 있는 듯 한데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와 포항공대를 제외한 5개 국립대학 중 예산규모를 3년간(1991~93) 합산하면 예산액의 순위는 경북대(1,808억원), 충남대(1,720억원), 전남대(1,694억원), 부산대(1,564억원) 순으로 이어져 부산대학교의 총예산은 포항공대보다 뒤떨어지고 7개 대학 중 6위에 머물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해 있는 국립대학교의 총예산이 그 도시의 재정규모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면 전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의 예산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그리고 전국 주요 국립대학 중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현상은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들다.

다음, 대학총예산에서 할당되는 도서관의 재정규모는 어떠한지 알아본다. 도서관 예산중 자료구입비에 따른 예산액을 3년간 합산할 경우 포항공대는 서울대보다 훨씬 많은 35.5억원을 사용하여 년 평균 12억원이 자료비로 지출되었다. 그 다음이 서울대(30.4억원), 경북대(25.5억원), 전남대(25.5억원), 충남대(23.8억원) 순으로 이어지고 부산대는 6위의 21.7억원을 자료구입비로 사용하여 대학총예산 규모에 정비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해서 부산대의 원천적으로 부족한 장서수와 학술잡지수 현황은 어찌면 당연한 결론일지도 모른다.

7. 열람좌석수 대 학생수 비교

도서관의 열람석은 사람과 자료 다음으로 중시되는 요소이다. 대교협이 요구하는 좌석 형태는 개가계 좌석과 폐가계 좌석으로 구분하여 제출토록 했지만 이런 구분은 별의미가 없다. 대학설치기준령에는 일찌기 좌석수의 법적 기준을 정하여 학생 1인당 0.2석, 즉 학생 5명당 1좌석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령이 정하는 법적 좌석수에 의하면 7개 대학 모두 상회하거나 도달하고 있다. 7개 대학 중 포항공대가 1좌석 학생 2.6명으로 가장 여유가 있으며 부산대는

법적 기준에는 98.8%에 도달하고 있지만 5번째 순위에 머물고 있다.

(〈표-7〉 참조)

〈표-7〉 열람좌석수 대 학생수 비교

	도서관수	열람좌석수	학생 수	1좌석당 학생 수	순 위	
					좌 석 수	1좌석당 학생 수
경북대	1	5,953	21,190	3.6	1	2
부산대	3	4,068	19,880	4.9	5	5
서울대	5	5,725	29,457	5.1	2	6
전남대	2	5,150	20,396	4.0	3	4
전북대	3	2,864	17,131	6.0	6	7
충남대	1	4,904	18,452	3.8	4	3
포항공대	1	842	2,223	2.6	7	1

8. 비도서자료 확보 비교

대교협이 제시하는 비도서자료의 형태는 마이크로 필름과 퍼쉬 그리고 CD 등 3종에 한하여 물량조사만 하고 있다. 종류가 어찌 그것 뿐이겠으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비도서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hard ware)가 생략되어 있다는 데 있다. 동시에 기기에 장착하여 활용할 물품(soft ware)은 매우 다양하고 값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이를 단순히 물량조사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대학도서관 평가의 공정성에서 문제가 많다.

다만 평가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최신간 〈국립대학도서관보〉에서 품목 3가지를 추가, 총 6개 아이টে็ม으로 물량적 숫자로 단순비교(질과 내용은 평가불가)하여 순위를 매기면 〈표-8〉과 같다.

〈표-8〉 비도서자료 확보* 비교

	Micro film	Micro fiche	CD	CD-ROM	Video	Slide	계	순 위
경 북 대	NA	NA	12	NA	968	4	984	6
부 산 대	610	24	8	9	51	50	752	7
서 울 대	12,687	3,954	673	NA	273	3	17,590	1
전 남 대	251	1,127	NA	17	79	76	1,550	4
전 북 대	273	1,070	84	3	56	NA	1,486	5
충 남 대	860	NA	NA	43	967	248	2,118	3
포항공대	2,600	NA	NA	94	3,867	NA	6,561	2

NA : 미확인

* 자체평가자료와 「국립대학도서관보」 12(1994) 혼합작성하였음.

내용과 질문제를 일단 배제하고 비도서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한 서울대는 1만 7천종이 넘는다. 나머지 국립대학은 1천여종 안팎의 자료로 이용시키고 있으며 그 중 부산대는 750여종의 비도서자료가 있어 최하위의 보유순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제기될 문제는 종류에 따른 하드웨어의 기종과 성능이 명시되어야 하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형태가 있으며, 얼마나 유용성이 있는 자료인지가 검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비도서자료마다 규격에 맞는 공간(room)이 확보되고 훈련받은 사서가 상주하고 있는지도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9. 전산기 보유현황 및 전산화 정도 비교

도서관의 전산화 정도 파악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평가도구도 개발되고, 평가항목도 독립화하여 구체적인 평가배점을 가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평가방법이 창조되어야 한다.

대교협이 제시하는 평가내용은 전산기의 보유대수와 전산화의 추진정도만을 묻는 것이다. 전산기의 보유대수에서 단순한 물량평가는 점수화가 불가능하며, 전산화의 추진정도에 있어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곤란하며 대학간의 우열을 가릴 판단기준이 없다.

다만 자체평가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포항공대의 경우 86년 개교와 동시에 도서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여 완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6개 국립대학은 제 9차 IBRD 차관 사업에 의해 전산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산기의 현황과 S/W보유, DB 구축정도는 <표-9>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산화 추진정도에 있어서는 기준일시의 차이로 구축율이 편차가 큰 듯 하지만 지금도 진행중이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부산대의 경우 조달청에 전산기를 구입요청 중에 있으며 그 밖의 대학들도 차관사업에 의해 조만간 전산화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9> 전산기 보유현황 및 전산화정도 비교

	전 산 기 보 유 대 수					전 산 화 추 진 정 도		
	W/S (모델)	Terminal	P/C	Printer	CD-ROM Drive	S/W 가동	DB구축 완료책수	DB구축 율(%)
경북대	NA	21	6	14	NA	수서업무 목록업무대출 · 반납업무	233,125	30
부산대	1 (SUN -10)	복 합 사 용	36	17	15	목록업무 온라 인검색대출· 반납업무	260,000	40
서울대	1 (SDT -400)	4	104	49	35	토탈시스템 개발완료	736,932	45
전남대	NA	NA	22	12	3	수서업무 목록업무대출 · 반납업무	179,373	28
전북대	NA	6	28	23	NA	대출·반납업무	201,584	39
충북대	NA	NA	27	NA	NA	NA	391,000	55
포 공 대	1(VAX -8350)	NA	NA	NA	NA	토탈시스템가동	127,584	100

NA : 미확인

IV. 결 론

- 종합평가와 제언 -

국제화, 세계화의 바람은 대학의 개방화와 더불어 마침내 대학간의 경쟁도 시작되었다. 대학안의 주요조직의 하나인 도서관은 그 대학의 심장으로서, 얼굴로서,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진 단위기관으로서, 그리고 대학의 재정을 최다로 사용하는 핵심기관으로서 대학간의 경쟁 뿐만 아니라 도서관 간의 경쟁도 더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도서관 만을 대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이들이 서로 경쟁하며, 경쟁을 바탕으로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정녕 대학에 있어서 도서관은 심장인가? 아니면 맹장보다 못한 존재인가? 이번 7개 대학들이 - 경북대(934p.), 부산대(760p.), 서울대(876p.), 전남대(710p.), 전북대(681p.), 충남대(679p.), 포항공대(429p.) - 괄호속의 책두께처럼 한결같이 방대한 평가서를 편찬하면서도 그속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분량은 4~5 페이지 밖에 취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적고 초라한 부문마저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자가 동원되지 못하고 도서관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나서서 대교협 의 소정양식마저 제대로 기재치 못하는 우(愚)를 상당수 범하고 말았다.

대학안에는 도서관을 평가할 사람이나 관련 학과도 없다는 것인가?⁸⁾ 지금까지 대학안에서 차지하는 도서관의 위상이나 관련 학과의 비중이 이렇게까지 평가절하되고 있었던가? 정말 대교협은 대학종합평가에서 도서관은 3% 가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인가? 그리고 도서관을 이토록 뺄개쳐 두어도 우리는 계속 침묵만 지키고 있을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8) 이번 평가대상교 중 지방 5개 국립대학(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에는 모두 문헌정보학 과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자체평가의 집필자와 평가확인자는 공과대, 농과대, 환경대 등의 교수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7개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한 내용은 대학의 주변환경과 대학의 개황 등 도서관 외적 영역 2개와 도서관 직원, 장서, 학술잡지, 자료구입비, 열람좌석수, 비도서자료, 전산화 정도 등 도서관 내적 영역 7개로 구성되어 모두 9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35개로 구성된다.

그중 평가의 적절성이 결여되고 평가로서의 의미가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을 제외하면 모두 7개 영역, 22개의 평가항목을 선정할 수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가시화된 현황을 열거하고 이를 상호비교하여 우열을 가리고자 한다.

〈표-10〉에서 보이는 내용은 〈범례〉와 같은 7개 영역(〈표-2〉~〈표-8〉)에서 22개 항목을 중심으로 각 대학간 우열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종합된 내용을 분석하면 22개 요소(factor) 중 1순위 항목이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가 13개로 선두를 보이고, 포항공대는 6개 항목으로 2위를 차지한다. 그 밖의 대학은 1위를 차지한 것이 전혀 없거나 중요치가 덜한 항목이 1개 정도 있을 뿐이다. 2순위의 항목을 획득한 대학 간의 우열은 경북대 6개, 서울대 5개, 부산대 4개, 전남대 3개, 충남대 3개, 포항공대 2개 항목 순으로 이어진다. 3순위 항목의 기록은 경북대 8개, 충남대 6개,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각 2개, 전북대, 포항공대 각 1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10〉 대학도서관 종합순위표

〈범례〉:

〈표-2〉 대학의 개황 순위

- 2-a. 설립년도
- 2-b. 기구규모
- 2-c. 교수수
- 2-d. 학생수
- 2-e. 교지면적
- 2-f. 건물면적

〈표-3〉 도서관 직원 순위

- 3-a. 도서관 직원수
- 3-b. 사서직수
- 3-c. 자격증 소지수
- 3-d. 자격증 소지율

〈표-4〉 장서확보 순위

- 4-a. 장서수
- 4-b. 교수 1인당 장서수
- 4-c. 학생 1인당 장서수

〈표-5〉 학술잡지 구독 순위

- 5-a. 학술잡지 구독수
- 5-b. 1학과당 잡지수
- 5-c. 1교수당 잡지수

〈표-6〉 최근 3년간 대학 총예산 및 도서관 구입 예산순위

- 6-a. 대학 총예산액
- 6-b. 도서관구입비
- 6-c. 대학 총예산 대 도서비 비율

〈표-7〉 열람좌석수 순위

- 7-a. 좌석수
- 7-b. 1좌석당 학생수

〈표-8〉 비도서자료 확보 순위

- 8-a. 비도서자료수

범례	2						3				4			5			6			7		8
	a	b	c	d	e	f	a	b	c	d	a	b	c	a	b	c	a	b	c	a	b	a
경북대	3	2	2	2	5	6	3	3	3	3	2	3	4	6	6	6	2	3	3	1	2	6
부산대	1	4	2	4	7	3	3	2	2	2	5	5	5	4	4	4	6	6	4	5	5	7
서울대	2	1	1	1	3	1	1	1	1	1	1	1	2	1	2	3	1	2	7	2	6	1
전남대	4	5	4	3	6	2	2	4	5	6	4	4	6	5	5	5	4	4	2	3	4	4
전북대	6	3	5	6	4	4	5	6	4	4	6	6	7	7	7	7	7	7	6	6	7	5
충남대	5	6	6	5	1	5	6	5	6	5	3	2	3	2	3	2	3	5	5	4	3	3
포항공대	7	7	7	7	2	7	7	7	-	-	7	7	1	3	1	1	5	1	1	7	1	2

이상과 같이 1~3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대학이 얼마만큼 획득하고 있는가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상위서열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를 부산대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2개의 평가항목에서 받은 우열순위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얻은 1위 항목이 1개, 2위 항목이 4개, 3위 항목이 2개, 4위 항목이 6개, 5위 항목이 5개, 6위 항목이 2개, 7위 항목이 2개 씩 있어 7개 대학 중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본 순위표에 나타난 모든 숫자는 질적 및 내용에서 추출된 절대평가가 아닐 뿐더러 단순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의 본질적 내용과는 일치할 수 없다. 심지어 대학도서관의 장서수와 시설기자재수를 가지고 대학을 서열화한다는 것은 대학의 정신이 아니라 가축도살장의 논리로 비유하는 학자도 있다.⁹⁾

이상과 같이 대학종합 자체평가보고서에서 얻은 ‘도서관영역’의 평가항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일단 외형적으로 도서관의 우열은 판가름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고식적(姑息的)이고 단순비교적인 평가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객관적 검증(objective verification)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는 한편, 도서관을 대하는 사회의 시각을 반전(反轉)시키고, 또한 지금까지 구축해온 우리의 역량을 정당당당히 평가받기 위하여 도서관인(司書)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과 각오가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관은 외형적 평가보다 내면의 본질적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도서관이 앞장서서 밝혀주어야 하며, 지금까지 고정관념 속에서 잠자고 있는 도서관 상(像)을 재평가 받도록 이 사회와 온 나라에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9) 시사저널, “커버스토리 : 대학의 서열이 바뀌고 있다”, 1994. 12. 22, pp.46~75.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 및 질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앞으로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지정항목 이외에 추가로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1. 도서관 독립평가제도 마련
2.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기구 조직
3. 도서관 평가도구의 개발
4. 도서관 직원에 대한 평가
5. 이용자 봉사에 대한 평가
6. 장서 및 학술잡지의 질적 평가 시행
7. 비도서자료의 H/W와 S/W의 구체적 평가기준 작성
8. 전산화 평가를 세분화하고 독립항목을 설정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brary Area' as Reflected in the University Self-Evaluation of 1994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6 Other Universities

Jung-tai Cho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valuate the library area of the 7 self-evaluated universities in 1994, and to make them compete one another and go into a better stage of library development. The universities evaluated were Pusan National University, KyungBook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nd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Summary of Rank Order Table for University Libraries

- | | |
|--|--|
| <p>Fig. 2 University Status</p> <p>2-a Year of Foundation</p> <p>2-b Numbers of Organization</p> <p>2-c Faculty Members</p> <p>2-d Student Enrollment</p> <p>2-e School Site</p> <p>2-f Building Square Measure</p> <p>Fig. 3 Library Staff and Professional Librarian</p> <p>3-a Total Number</p> <p>3-b Professional Librarians</p> <p>3-c Qualified Librarians</p> <p>3-d Ratio of Qualified Librarians</p> <p>Fig. 4 Size of Collection</p> <p>4-a Whole Collection</p> <p>4-b Volumes per Faculty Member</p> <p>4-c Volumes per Student</p> | <p>Fig. 5 Academic Journals, Currently Purchased</p> <p>5-a Titles of Purchased Journals</p> <p>5-b Titles per Department</p> <p>5-c Titles per Faculty Members</p> <p>Fig. 6 University Budget vs. Material Expenditures for the Recent 3years</p> <p>6-a Whole University Budget</p> <p>6-b Material Expenditures</p> <p>6-c Ratio of Univ. Budgets vs. Material Expenditures</p> <p>Fig. 7 Library Scale</p> <p>7-a Numbers of Seats</p> <p>7-b Students per Seats</p> <p>Fig. 8 Non-book Materials</p> <p>8-a Titles of Non-book Materials</p> |
|--|--|

Fig.	2						3				4			5			6			7		8
	a	b	c	d	e	f	a	b	c	d	a	b	c	a	b	c	a	b	c	a	b	a
K. N. U.	3	2	2	2	5	6	3	3	3	3	2	3	4	6	6	6	2	3	3	1	2	6
P. N. U.	1	4	2	4	7	3	3	2	2	2	5	5	5	4	4	4	6	6	4	5	5	7
S. N. U.	2	1	1	1	3	1	1	1	1	1	1	1	2	1	2	3	1	2	7	2	6	1
C. N. U.	4	5	4	3	6	2	2	4	5	6	4	4	6	5	5	5	4	4	2	3	4	4
C b.N.U.	6	3	5	6	4	4	5	6	4	4	6	6	7	7	7	7	7	7	6	6	7	5
C n.N.U.	5	6	6	5	1	5	6	5	6	5	3	2	3	2	3	2	3	5	5	4	3	3
P.U.S.T.	7	7	7	7	2	7	7	7	-	-	7	7	1	3	1	1	5	1	1	7	1	2